

Donald Clemmer의 교도소화(Prisonization)* 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경험적 검증

민 수 흥**

국 | 문 | 요 | 약

이 논문은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개념인 교도소화(prisonization)를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교도소화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에서도 산출된 연구결과의 경험적 타당도가 낮아 새로운 이론적 접근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도소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D. Clemmer(1940)로 돌아가서 그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을 사회학습이론뿐만 아니라 통제이론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두 이론의 예측을 서로 대립시켜 검증함으로써 교도소화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Clemmer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 중에서 3개의 요인을 선정하여 사회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각기 해석하고 교도소화에 대해 서로 상반된 관계를 예측하였다. 경험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수형자의 수감이전의 특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수감이전에 형성된 안정적 성향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참아내는 능력(자기통제력)이 교도소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학습이론의 예측은 부정되고 자기통제이론은 경험적 지지를 얻었다.

❖ 주제어 : 교도소화, 자기통제력, 수형자, 클레머

* Prisonization은 수형자가 교도소 안에서 비공식적인 사회화를 통해 교도소의 반문화에 적응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약화되고 조장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을 '교도소화(矯導所化)'로 번역하면 사람을 바로잡아 인도한다는 교도(矯導)의 의미로 인해 수형자가 선도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교도소(矯導所)의 사전적 의미가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노역 유치나 규류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수용하는 행형기관(동아새국어사전, 1990)'으로 가치중립적이고, Prisonization 개념을 국내에 소개한 최초의 연구(심영희, 윤성은, 임희철, 김치곤, 1992)부터 기존의 모든 국내 문헌이 '교도소화'로 번역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도 이것을 따르기로 하였다.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사회학 박사

I. 서론

1. 문제제기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이전에도 특수 절도, 폭력 등 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렇듯 교도소 출입이 잦을수록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가 확대 재생산 된다는 것은 교도소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절도범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더 악질화 되어 출감 후에는 강도 또는 살인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전북일보 2009. 2. 4).

교도소는 수형자들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가운데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복귀(rehabilitation)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의도한 것과 다르게 수형자들이 수용기간 중에 오히려 범죄적 하위문화와 그 가치체계에 동화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이 사회복귀를 위한 재사회화과정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범죄학교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에 있어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40년대부터 교도소화(prisoniz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교도소에서의 부정적인 재사회화를 연구해 오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적절한 경험적 연구와 깊이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교도소화를 일찍부터 다루어 온 미국의 경우에도 1960-70년대에 걸쳐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산출되는 경험적 타당도가 낮아 1990년대 이후로는 교도소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 문제를 새로운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Gillespie, 2003).

공들여 시도한 일이 의도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back to the square one)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도소화에서 출발점이라면 이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내고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 선행요인들을 제시한 Donald Clemmer(1940)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는 경험적 타당도가 낮아 새로운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도소화를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Clemmer(1940)의 이론으로 돌아가서 그의 주장들을 새로운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교도소화에 대해 다원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서 경험적 연구를 하는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교도소화에 대한 연구가 6편으로 제한된 가운데 3편(김선희, 2001; 이운호 2002a, 2002b)은 이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경험적인 연구를 찾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국내 최초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심영희와 동료들(1992)은 교도소화를 4개의 하위차원(재소자의 비공식 규율 수용정도, 교도관에 대한 동조정도, 범죄성의 수용정도, 교도소 규율위반정도)으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거쳐 관련 요인들을 주로 이원분석(bivariate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들은 교도소화를 폭넓고 이질적인 요소로 이해함으로써 특정이론에 기초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 여러 주장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검증하였다. 나머지 두 연구(김두섭, 전영실, 1996; 김자경, 2000)도 심영희와 동료들이 제시한 교도소화의 하위차원들과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요 유형들을 수용하여 주로 기술적인(descriptive)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국내에서 되어진 3편의 경험적 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이론에 기초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다원분석을 통해 교도소화를 검증하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을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검증하는 의의를 갖는다. 교도소화를 사회학습이론 혹은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던 이제까지의 시각에서 벗어나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Clemmer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검증함으로써 교도소화 개념이 직면한 낮은 경험적 타당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및 이론적 논의

미국에서 교도소 상황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반부터이다.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은 의료모형에 입각하여 사회복귀를 연구하였고, 사회학자들은 교도소 내부의 질서유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하위문화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회학자들은 19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교도소 하위문화를 정의하고, 수형자들이 하위문화로 재사회화되는 과정을 교도소화로 설명하였다(Pollock, 1997).

1. 교도소화

교도소화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교도소의 일반문화, 관습, 민속, 관행을 취하는 것(Clemmer, 1940), 수형자들이 교도소의 반문화 안에서 독특한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는 것(Garabedian, 1963), 수형자가 수형자 하위문화와 그 가치 체계에 동화하는 정도(Pollock-Byrne, 1990)로 정의된다. 수형자 규범(교도소 문화)은 통상적인 사회 가치와는 대립적인 가치, 즉 범죄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반문화(counter-culture)로 불리기도 한다. 수형자 하위문화는 이러한 수형자 규범에 기초해서 불법적인 권력체계와 상호교환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어떤 수형자든 어느 정도의 교도소화를 경험하게 된다(Clemmer, 1940). 수형자들은 이러한 규범적 규칙을 옹호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수형자에게는 집단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수형자 규범은 수형자들에게 정체감을 부여하고, 적(교도관)과의 대결에서 구성원을 후원하며, 안전감을 제고해 주고, 수형자들 간의 폭력사용을 감소시키고, 교도소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재를 공유하여 보다 평등한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Sykes and Messinger, 1960). 교도소화는 동시에 수형자의 성격을 붕괴시켜서 그들의 범죄성을 악화시키고, 범죄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며, 출소 후의 사회적응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Clemmer, 1940).

2.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

본 연구를 위해서 교도소화 과정을 최초로 밝혀낸 Clemmer(1940)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Clemmer가 교도소화 이론을 제시하던 당시에는 아직 주요 범죄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점이라는 점과 그가 일리노이 주 남부에 위치한 중구금(重拘禁) 교도소에서 관찰을 통해 선행요인들을 파악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가 제시한 요인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가 제시한 요인들은 아래와 같이 교도소 수감 이전의 특징, 교도소 내 상황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 수감 이전의 특징

- 수형자가 수감되기 이전에 긍정적인 주변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안정적인 성격
-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과도한 도박을 참아내는 능력과 일과 여가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자발성

나. 교도소 내 상황적 요인

- 형량
- 수형자가 교도소 밖의 사람들과 형성하는 관계
-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일차집단과 교제하는지 여부와 정도
- 수형자가 교도소 집단의 규범과 신조를 수용하는지 여부와 정도
- 우연이나 기회

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 연령, 국적, 인종, 지역

3. 이론적 논의

교도소화 개념은 미국에서 1940년대에 만들어져 1970년대까지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교도소화 이론의 경험적 타당도가 낮게 나오면서 이에 대한 범죄학자들의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사회학습이론 혹은 하위문화이론의 관점에서 거의 배타적으로 해석되고 연구되어온 교도소화 개념이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론적 시각에서 교도소화를 재해석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교도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Clemmer(1940)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 가운데 수형자의 연령, 교도소 안에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는지 여부, 수형자의 수감이전의 특징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기존의 학습이론적 설명 이외에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이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교도소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Gillespie, 2003). 수형자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도소화로의 재사회화가 더 진척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업의 영역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일과 관련된 경험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한편 통제이론을 대표하는 Hirschi는 연령과 범죄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즉, 10대 중후반 혹은 20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던 범죄는 정점에 이른 후 가파르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가는 형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관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관계는 연령 그 자체의 효과라고 주장한다(Hirschi and Gottfredson, 1983).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의 나이가 20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Hirschi의 주장을 교도소화에 적용시켜보면, 수형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적 가치를 포함하는 교도소화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교도소 안에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을수록 사회학습이론은 교도소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Gillespie, 2003). 범죄적 가치를 가진 수형자 친구가 있을수록 범죄적 가치가 강화되거나 학습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을 저지른 나쁜 친구를 사귀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친구의 나쁜 영향으로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예측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친구와의 애착(attachment)은 친구의 비행지위와 상관없이 비행이나 범죄의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을수록 교도소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Clemmer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 가운데 수형자의 수감이전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수형자의 수감이전의 특징 2가지는 ‘수형자가 수감되기 이전에 긍정적인 주변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안정적인 성격’과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과도한 도박을 참아내는 능력과 일과 여가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자발성’이다.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수형자가 일과 같은 장기적인 이익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일탈적 행동을 삼가는 안정적인 성격경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교도소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교도소화는 본질적으로 학습이고, 안정적인 성격은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¹⁾. 수형자가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참아내고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을수록 학습(그 내용이 주문화가 요구하는 바른 행동의 학습이건 반문화가 요구하는 나쁜 행동의 학습이건)에 도움이 될 것이다.

Clemmer가 제시한 수형자의 수감이전의 특징 2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기통제력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일 수 있고, 이러한 시각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로부터 빌려 올 수 있다.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감이전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우선 ‘수형자가 수감되기 이전에 긍정적인 주변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안정적인 성격’은 자기통제력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훈육을 통해 형성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자기통제이론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수형자가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과도한 도박을 참아내는 능력과 일과 여가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자발성’은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과 장기적인 손해를 고려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Clemmer가 교도소화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수형자의 수감이전 특징은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인간의 본성을 hedonism적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이러한 인간에게 범죄란 그들의 욕구를 즉각적이고 손쉽게 충족시켜주는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1) 사회학습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중립적인 상태로 가정한다(Bartol and Bartol, 2008). 따라서 학습이론은 좋은 행동도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고 나쁜 행동도 마찬가지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입장이다.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모두 학습에 의해서 습득하는 것이라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예컨대, 높은 지능, 안정적인 성격, 집중력, 당장의 쾌락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 등)은 좋은 행동의 학습뿐만 아니라 나쁜 행동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만이 범죄에 대한 동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기를 갖는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연스럽다(spontaneous)고 보는 시각으로 이렇듯 범죄에의 동기를 갖는 인간 대부분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인가에 답하려 한다. 누구든 범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어려서 가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기통제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은 범죄가 주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손실을 고려하여 유혹을 이겨낸다고 한다. 자기통제이론의 시각을 사회학습이론과 대비시켜 본다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모두 배워야 할 수 있다는 사회학습이론과 달리 자기통제이론은 나쁜 일의 동기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참아내는 자기통제력은 배워야 형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수감이전 특성을 자기통제력으로 해석하게 되면,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범죄적 가치를 포함하는 교도소화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 가운데 일부를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각기 해석하고 검증하게 되면 범죄이론들 사이의 경합을 통해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4년 9월 1일부터 동년 9월 8일까지 전국의 6개 교도소(안양, 대전, 광주, 마산, 대구 교도소와 우리나라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구 교도소)를 선정하여 모두 413명을 조사한 자료를 사용한다. 조사한 수형자 가운데 상당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일정한 유형에 따라서 응답하는 등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54명을 제외한 359명(86.9%)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조병인, 원혜옥, 민수홍, 이경재, 2004).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 for Windows(Version 14.0)를 사용하였다. 교도소화 지수

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Clemmer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도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요인들이 사회학습이론이 예측한 방향에서 작용하는지 아니면 통제이론이 예측한대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이번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쓰이는 교도소화의 측정과 Clemmer가 교도소화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한 것들 가운데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로 총 교도소 누적 복역기간,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수형자의 가족접견 횟수, 연령, 자기통제력을 선정하고 여기에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가구 총 수입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측정은 아래와 같다.

가. 교도소화

수형자 규범에는 2가지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첫째, 동료 수형자들간의 단결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료를 교도관에게 밀고하지 말고, 동료와 싸우지 말고, 희귀한 재화를 서로 공유하도록 권한다. 둘째, 교도관을 믿지 말고 늘 의심하도록 요구한다. 예컨대, 교도관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지 말고 그들의 권위에 바로 복종하지 말라고 권한다. Wheeler(1961)는 수형자 규범을 수형자 상호간의 충성, 존경, 상호원조를 통해 서로 연합할 것과 교도관이라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대항할 것을 요구하는 이원적 규범지향(dual normative orientation)으로 요약하였다. 그는 또한 교도소화를 검증하기 위해 짧은 삽화(挿話, vignette)를 만들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린 결정에 수형자들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가 개발한 양적 조사방법론 덕분에 그 이전까지의 질적 참여관찰(Clemmer, 1940)에서 벗어나 교도소화에 대한 양적분석이 가능해졌다.

Zingraff(1975)는 Wheeler와 마찬가지로 교도소화가 교도소에 대한 적대, 집단 내부

에의 충성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정당성 부정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화를 측정하기 위해 수형자 집단 내부에의 단결과 충성, 교도관이나 교도소에 대한 적대, 형사사법체계나 전통적인 근로가치의 정당성 부정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그 각각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먼저, 수형자집단 내부에의 단결과 충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Wheeler가 제시한 삽화 가운데 2개(“수형자 최씨와 김씨는 친한 친구사이이다. 최씨는 방문객을 통해 몰래 돈을 들여왔는데 교도관이 의심하는 것 같다. 그래 김씨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그 돈을 몇 일간 숨겨주었다”와 “도주를 계획하던 수형자 김씨와 이씨는 수형자 박씨를 위협하여 공구를 몰래 구해오게 했다. 박씨는 공구를 구해오다 발각되어 도주 혐의를 받게 되었다. 박씨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벌을 받았다”)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교도관/교도소에 대한 적대를 측정하기 위해 “교도소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가석방으로 일찍 출소하고 싶으면 당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지 말고 교도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교도관에게 이야기하는 수형자는 나약한 사람이다”, “나는 문제를 일으켜도 교묘히 벌을 피할 수 있다”의 4 문항과 Wheeler가 제시한 삽화 가운데 2개(“수형자 김씨는 작업장에서 다른 수형자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다른 수형자들의 비난에도 김씨는 열심히 일했다”와 “한 수형자가 사소한 규칙을 위반했고 교도관이 이것을 보고했다. 다른 수형자들은 교도관을 비난했지만 수형자 이씨는 교도관이 할 일을 했다며 교도관을 변호했다”)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체계나 전통 근로가치의 정당성 부정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은 부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겐 불리하다”, “내가 잘못된 것은 재수 없게 잡혔다는 것뿐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의 4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2문항을 사용하여 교도소화의 합성지수(composite index)를 만들었다. 이 지수의 Cronbach의 알파값은 .68이다.

나.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수형자에게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문제를 터

놓고 얘기하는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습니까?”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 교도소 총 복역기간, 수형자의 가족접견 횟수

수형자가 조사시점까지 교도소에서 보낸 총 복역기간을 개월 단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수형자의 가족접견 횟수는 “귀하의 가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몇 번 접견을 왔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라.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1)충동성, (2)단순한 일의 선호, (3)위험한 일의 선호, (4)신체적인 활동의 선호 혹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 (5)자기중심성, (6)급한 성미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Grasmick, Tittle, Bursik, and Arneklev, 1993).

상기한 하위영역들을 나타내는 문항 6개를 먼저 선택하였다. 즉,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지금 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의 6개 문항에다 아래의 2가지 행위적 측정문항을 추가하였다.

행위적 측정문항으로 “귀하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피웠습니까? (피웠다면)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의 문항과 “귀하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의 2문항을 추가하여 자기통제력을 최종적으로 측정하였다. 술과 담배의 사용은 자기통제력의 여러 가지 하위영역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흡연과 음주경험을 묻는 문항과 경험이 있다면 처음 사용할 당시의 나이를 묻는 두 문항을 사용하여 각기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²⁾. 위에서 열거한 8개 문항으로 태도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을 통합하여

2) 술, 담배를 한 경우에도 그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즉각적인 욕구충족의 추구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술, 담배를 하는 경우를 시작 시점에 따라서 ‘13세 이전 시작’, ‘14-15세 시작’, ‘16-17세 시작’, ‘18-19세 시작’, ‘20-21세 시작’, ‘22세 이후 시작’, ‘사용하지 않았다’의 7개 범주로 나누고 각기 1, 1.5, 2, 2.5, 3, 3.5, 4의 값을 부여하였다.

측정한 자기통제력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값은 .76으로 나타났다.

마. 사회인구학적 변인

수형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 총 수입액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령은 응답자가 제시한 출생년도를 가지고 계산하였다. 성별은 여자를 '0', 남자를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수형자들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초급대학 중퇴 이상까지 4개의 등급으로 묶어 측정하였다. 가구의 총수입액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귀하의 가족원들이 1년에 번 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1000만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까지 5개의 범주로 묶어 사용하였다.

바. 측정된 교도소화의 타당도 검사

측정된 교도소화가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다른 변수들과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구성체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사하였다. 이론적으로 보면, 어려서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나 과거에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을수록 없는 경우보다 교도소화가 높고, 재범인 수형자가 초범인 수형자보다 높은 교도소화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과거 소년원 수용경험 유무를 보면, 소년원 유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보다 더 높은 교도소화를 나타내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미하다(〈표 1〉). 다음으로 과거에 교도소에 복역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교도소화 평균점수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고 그 차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마지막으로 재범집단의 교도소화 평균점수가 초범집단보다 높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상에서 되어진 3가지 구성체 타당도 검사에서 모두 기대했던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측정된 교도소화가 선정된 3가지 변수들과 이론이 예측한 대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1〉 과거 소년원 수용여부, 과거 교도소 복역여부, 재범여부에 따른 교도소화 평균

변수와 범주	N	평균값	F
과거 소년원 수용여부	321	24.29	7.91**
없다	276	23.96	
있다	45	26.27	
과거 교도소 복역여부	320	24.31	6.40*
없다	185	23.70	
있다	135	25.16	
재범여부	313	24.30	4.24*
초범	138	23.62	
재범	175	24.83	

*: $p < 0.05$, **: $p < 0.01$

IV. 연구결과

Clemmer가 제시한 3가지 유형의 선행요인들 사이의 단순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징 가운데 성별은 교도소 총 복역기간, 가족접견 횟수, 자기통제력, 교도소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 수형자가 여자보다 교도소 복역기간이 길고, 교도소화 수준이 높으나, 가족접견 횟수는 적고,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성별,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와 가족접견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수형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 수입은 높으며, 교도소 복역기간이 길고, 자기통제력 수준은 높고, 교도소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가구 수입, 교도소 복역기간, 가족접견 횟수와 관련이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가구 수입이 많고, 교도소 복역기간은 짧으며, 가족접견 횟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 수입은 교도소 복역기간, 가족접견 횟수, 자기통제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서 가구 수입이 많을수록 교도소 복역기간이 짧고, 가족 접견 횟수가 많으며,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도소 내 상황적 요인들은 모두 교도소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교도소 복역기간은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가족접견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복역기간이 길수록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고, 가족 접견 횟수는 적었다. 가족접견 횟수는 수형자의 자기통제력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접견 횟수가 많았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감이전의 특징인 자기통제력과 교도소화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r=-.33$). 이는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교도소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N=263)

	(1)	(2)	(3)	(4)	(5)	(6)	(7)	(8)
(1) 성별								
(2) 연령	-.098							
(3) 교육	-.009	-.128*						
(4) 가구총수입	-.027	.122*	.305***					
(5) 교도소 총 복역기간	.215***	.260***	-.245***	-.197**				
(6)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026	-.050	-.017	.021	.172**			
(7) 가족접견 횟수	-.105*	.029	.239***	.369***	-.320***	-.062		
(8) 자기통제력	-.258***	.384***	.089	.205***	-.072	-.019	.236***	
(9) 교도소화	.111*	-.171**	-.036	-.068	-.016	-.073	-.081	-.330***

*: $p<0.05$, **: $p<0.01$, ***: $p<0.001$

Clemmer가 제시한 선행요인들이 교도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수형자의 교도소화를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사회인구학적 특징(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총 수입)과 교도소 내 상황적 요인(교도소 총 복역기간,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와 가족접견 횟수)을 넣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가 제시된 〈표 3〉의 모델 1을 보면, 7가지 독립변수들 가운데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 $p<.01$). 즉 나이가 많을수록 수형자의 교도소화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는 교도소화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는 경우에 교도소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7개의 독립변수들이 교도소화를 설명한 결정계수는 .05로 낮은 편이다.

모델 1에다 수감이전의 특징인 자기통제력을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2의 결과를 보면, 사용된 8개의 독립변수들 가운데 자기통제력만이 교도소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쳐서($\beta = -.30, p < .001$)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 교도소화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교도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던 연령은 자기통제력이 통제되면서 갖고 있던 통계적 유의미성이 상실되었다.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독립변수들의 결정계수값이 .12로 R^2 값이 .07만큼 증가한 것을 보면 자기통제력이 교도소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 수형자의 교도소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교도소화	
		모델 1	모델 2
성별		.09	.03
연령		-.17**	-.05
교육		-.07	-.02
가구 총 수입		.01	.01
교도소 총 복역기간		.01	-.03
친한 동료수형자 유무		-.06	-.08
가족접견횟수		-.07	-.02
자기통제력			-.30***
R^2		.05	.12
F비		2.26*	4.30***
사례수		291	263

*: $p < 0.05$, **: $p < 0.01$, ***: $p < 0.001$

note: 위에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회귀계수임.

V. 논 의

이 논문은 국내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개념인 교도소화(prisonization)를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교도소화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에서도 산출된 연구결과의 경험적 타당도가 낮아 새로운 이론적 접근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도소화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낸 D. Clemmer(1940)로 돌아가서 그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을 사회학습이론뿐만 아니라 통제이론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두 이론의 예측을 서로 대립시켜 검증함으로써 교도소화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Clemmer가 제시한 교도소화의 선행요인들 중에 3개(연령, 교도소 안에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수감 이전의 특성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참아내는 안정적인 능력)를 선정하여 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각각 해석하고 각 요인이 교도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상반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첫째, 사회학습이론은 수형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도소화로의 재사회화가 더 진척됐을 것으로 예측하여 정(+)의 관계를 예측한 반면 통제이론은 연령-범죄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범죄적 가치를 포함하는 교도소화는 낮을 것으로 부(-)의 관계를 예측했다. 둘째, 사회학습이론은 수형자가 친한 동료 수형자를 가지고 있을수록 수형자인 친구로부터 범죄적 가치를 학습하여 교도소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사회통제이론은 동료와의 애착이 범죄적 가치를 포함하는 교도소화를 낮출 것으로 예측했다. 셋째, 사회학습이론은 수형자가 장기적인 목적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참아내는 안정적인 능력(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교도소화라는 학습에 도움이 되어 둘 사이에 정(+)의 관계를 예측했다. 반면에 자기통제이론은 수형자가 장기적인 목적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참아내는 안정적인 능력(자기통제력)을 가질수록 범죄적 가치를 포함하는 교도소화가 낮을 것으로 부(-)의 관계를 예측했다.

경험적 분석결과, 연령은 교도소화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수형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도소화가 낮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도소화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 사회학습이론보다 연령-범죄 곡선에 근거하여 부(-)적 관계를 예측한 통제이론이 경험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의 모델 2에서 수감 이전의 특성으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통제되면서 연령이 갖던 영향력은 상실되었다. 이 부분은 연령과 자기통제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는 교도소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친한 수형자 친구 유무 이외에 수형자 친구가 갖는 범죄성향 등 교도소 내 일차집단으로의 통합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Schwartz, 1971).

마지막으로 수감 이전에 형성된 안정적 성향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자발적으로 추구하고 일탈적인 행동을 참아내는 능력(자기통제력)은 교도소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학습이론이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자기통제 이론을 지지해 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교도소화의 주요 요인임을 알게 된 만큼 이후의 교도소화 관련 연구에도 자기통제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교도소화의 결과로 제시되는 현상들(예컨대 교도소 내의 규율위반, 교정프로그램에의 참여, 출소후 재범 등)에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는 교도소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Clemmer의 이론에 근거함으로써 그가 제시한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가 Clemmer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박탈요인(Sykes and Messinger, 1960)과 같이 그 이후의 연구에서 논의되어졌던 요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교도소화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 이외의 다른 주요 요인들을 찾고 포함시켜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동아출판사. 1990. 『동아새국어사전』.
- 김두섭, 전영실. 1996. 『여성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선희. 2001. “교도소화의 요인조절을 통한 교정처우방안.” 교정 제302호 pp. 40-61. 법무부.
- 김자경. 2000. 『교정시설내에서의 수형자의 행동, 의식 및 적응유형과 자아방어기제간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심영희, 윤성은, 임희철, 김치곤. 1992.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운호. 2002a. “교정문화론 상.” 교정 제317호 pp. 12-38. 법무부.
- 이운호. 2002b. “교정문화론 하.” 교정 제318호 pp. 13-21. 법무부.
- 전북일보. 2009. 2. 4. “교도소.”
- 조병인, 원혜옥, 민수홍, 이경재. 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rtol, Curt R, and Anne M, Bartol, 2008.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8th edition.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Clemmer, Donald. 1940. The Prison Community. Boston: Christopher Publishing Company.
- Garabedian, P. G. 1963. “Social roles and processes of socialization in the prison community.” Social Problems 11:139-152.
- Gillespie, Wayne. 2003. Prisonizati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Inmate Conduct. New York: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arold , Charles Tittle, Robert Bursik, Bruce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ravis and Michael Gottfredson. 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552-584.
- Pollock, J. 1997. "The social world of the prisoner." pp.218-269. In J. Pollock (ed.), *Prison: Today and Tomorrow*. Gaithersburg, MD: Aspen Publishers, Inc.
- Pllock-Byrne, J. 1990. *Women, Prison, and Crime*. Brooks/Cole Publishing Co.
- Schwartz, B. 1971. "Pre-institutional vs. situational influence in a correctional community."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 Police Science* 62:532-541.
- Sykes, Gresham and Sheldon Messinger. 1960. "The Inmate Social System." In *Theoretical Studies in 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Prison*,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amphlet No 15.
- Wheeler, S. 1961. "Socialization in correctional commun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679-712.
- Zingraff, M. T. 1975. "Prisonization as an inhibitor of effective resocialization." *Criminology* 13:366-388.

Reinterpretation and an Empirical Test of the Antecedents of Prisonization Specified by Donald Clemmer

Min, Su-Hong^{*}

This study tested prisonization with data collected from 6 prisons in Korea. Since the empirical validity of prisonization has been low in the United States, a totally new approach to prisonization is demanded. In an effort to try a new approach, this study started from the inventor of prisonization(Donald Clemmer(1940)) and what he claimed; then, it reinterpreted the presented antecedents of prison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learning theory and control theories, respectively.

Inmate characteristics, specified by Clemmer, of “a fairly stable personality made by an adequacy of positive and socialized relationships during pre-penal life,” “refraining from abnormal sex behavior, and excessive gambling,” and “a ready willingness to engage seriously in work and recreative activities” were interpreted as one's level of self-control. Empirical test results show that the inmate's level of self-control was negatively related to his/her level of prisonization, which supports self-control theory rather than social learning theory.

❖ Keywords: prisonization, self-control, inmate, Clemmer

투고일: 2009. 2. 11 / 심사(수정)일: 2009. 2. 23 / 게재확정일: 2009. 2. 27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Kyonggi University, Ph.D. in Sociology